

# 나성범 “KIA에 야구, 그 이상의 선수가 되겠다”

진흥고 출신 FA 시장 최대어 타이거즈 유니폼 입어  
KIA 타선에 '장타력' 갈증 풀어줄 선수로 기대

이젠 KIA 타이거즈의 나성범이다. KIA가 23일 FA(자유계약선수) 외야수 나성범의 영입 소식을 전했다. KIA와 나성범은 계약 기간 6년에 계약금 60억원, 연봉 60억원, 옵션 30억원 등 총 150억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마침내 '호랑이 군단'의 유니폼을 입게 된 나성범은 "이렇게 관심 주시고 제 가치를 높게 평가해주신 KIA 타이거즈 구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기대해주시고 응원해주신 KIA 팬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 올린다"며 "하루 빨리 팀에 적응해서 감독님과 코칭스태프, 선배 선수들과 가까워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무엇보다 팀과 선수단에 야구 그 이상으로 도움 되는 선수가 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나성범은 이번 FA 시장의 최대어로 주목받았다. 2012년 NC 다이노스에 입단한 나성범은 9시즌 동안 타율 0.312, 212홈런 830타점 814득점을 올리며 리그를 대표하는 강타자로 활약했다.

올 시즌에는 0.281의 타율에 머물면서 8년 연속 3할 타율은 기록하지 못했지만 144경기 전경기에 출전했고, 33홈런 101타점을 만들었다.

꾸준하고 강렬한 모습으로 NC를 상징하는 선수로 자리매김했던 만큼 나성범의 잔류가 예상됐지만, KIA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다시 한번 나성범이 스토브리그의 뜨거운 이름이 됐다.

KIA의 현실을 고려하면 나성범은 팀에 가장 필요한 선수였다.

올 시즌 KIA는 66개의 홈런으로 팀홈런 최하위에 그치는 등 장타력에서 심각한 약점을 보였다. 꾸준함의 대명사였던 최형우가 망망 이상으로 고

전했고, '주장'으로 팀을 이끌었던 나지완도 옆구리 근육 파열 부상으로 힘든 시즌을 보냈다.

그나마 황대인이 13개로 팀 최다 홈런 주인공이 되면서 가능성을 보여준 게 위안이라면 위안.

팀을 새로 이끌게 된 김종국 감독 역시 '장타력'을 우선 고민으로 언급했던 만큼 구단은 나성범을 KIA의 타선의 빈틈을 채워줄 선수로 주목했다.

KIA 연고지인 광주와 인연도 많은 선수다. 나성범은 진흥고와 연세대를 졸업한 뒤 NC에서 프로 데뷔를 한 '광주 출신'이다.

챔피언스필드 1호 홈런 주인공 타이틀도 가지고 있다.

나성범은 2014년 4월 2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전 6회초 무사 1루에서 임준섭을 상대로 오른쪽 풀을 때렸다. 자신의 시즌 1호이자 새로 문을 연 챔피언스필드 1호 홈런이었다.

올 시즌에는 챔피언스필드 외야 홈런존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놓기도 했다.

나성범은 9월 12일 열린 더블헤더 1차전에서 서덕원을 상대로 홈런존에 설치된 K5 차량을 때리는 투런포를 장식했다. 이 홈런으로 K5를 부상으로부터 가려간 나성범은 홈런존에 자신의 이름도 남겼다.

프로에서 가장 아쉬웠던 장면에도 KIA가 있었다.

나성범은 2019년 5월 3일 KIA와의 홈경기에서 윌랜드를 상대로 2회초 좌익선상을 타고 흐르는 2루타를 때리며, KBO리그 역대 91번째 1000안타 주인공이 됐다.

하지만 1000안타의 기쁨을 누릴 새도 없었다. 폭투 때 3루로 가던 나성범이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큰 부상을 당했고, 그의 2019시즌은 일찍 막이 내



FA 계약을 끝낸 나성범(오른쪽)이 KIA 유니폼을 입고 장정석 단장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렸다. 1100안타의 순간에도 KIA가 있었다. 2020시즌 부상에서 돌아온 나성범은 8월 20일 KIA와의 원정경기 첫 타석에서 가봉을 상대로 1100번째 안타를 날리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인연 많은 팀이자 자신의 고향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된 나성범은 자신의 오늘을 있게 한 NC 구단과 팬들에게 대한 감사의 인사도 잊지 않았다.

나성범은 "저를 이렇게 성장시켜주시고, 사랑해주셨던 NC 다이노스 구단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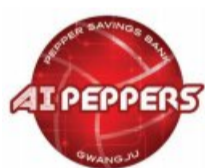
다"며 "NC 구단과 팬들이 있었기에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 많이 아쉬워하실 팬분들께 너무나 죄송하고, 모든 NC팬 여러분의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나만의 플레이로 승리 이끌고 싶어요”

시 페퍼스 '분위기 메이커' 센터 최가은

현대건설과 경기 10득점 '폭발' 파워 블로킹 등 팀의 든든한 공격 자원  
“갈수록 좋은 경기 보여드릴게요”



“지난 두 시즌 전 소속팀에서 배웠던 것들을 실전에서 쓸 수 있는 기회예요. 저만의 플레이를 직접 만들어서 팬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적생 최가은이 '폭발'했다. 지난 22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1-2022 V리그 경기에서 현대건설을 상대하며 10득점을 올렸다. 프로 입단한 이래 개인 최고 성적을 올린 최가은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그는 “혼자 잘 했다고 보다는 함께 해 준 동료들이 있어서 얻을 수 있던 성과다. 나를 믿고 공 올려준 동료들에게 고맙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가은은 지난 2019-2020시즌에 IBK기업은행에 입단하며 프로 생활을 시작했다. 포지션은 184cm 신장을 활용한 미들블로커(센터). 하지만 기업은행에서는 김희진, 김수지, 김현정 등 이미 강력한 센터 자원이 있었고, 최가은에게 좀처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두 시즌에서 최가은은 단 9경기 22득점만을 올렸다.

최가은은 ‘힘 있는 블로킹’으로 주목받았지만, 정작 본인은 블로킹을 약점으로 꼽았다. 다행히 이번 현대건설전에서는 총 6번 블로킹을 시도해 3득점을 올리며 우려를 말끔히 털어냈다.

그는 “블로킹 잘 하려고 개인적으로도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했다. 김형실 감독님도 블로킹을 강화하라고 많이 강조하셨다”며 “경기 전에도 상대 공격수들의 타이밍을 계속 생각하고, 타이밍을 잘 잡아서 감각을 익히려고 노력한 것 같다”고 웃었다.

엘리자벳을 빼고 박은서를 투입해 국내 선수들로만 코트를 채웠던 현대건설전에서 최가은은 든든한 공격 자원이었다. 최가은은 이동공격과 속공을 섞어 7득점(공격 성공률 53.85%)을 올리며 필멸 날았다.

최가은은 “리시브만 잘 되면, 다양한 플레이를 시도해 보자고 하셨다. 센터와 세트가 호흡을 맞추는 연습을 많이 했던 이유다”며 “그동안 속공, 이동공격 연습을 많이 해 온 것이 조금씩 실전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시즌 초반에는 저희도 경험이 부족해서 엘리자벳에게 공격이 집중되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선수들끼리 호흡도 맞춰지고 팀워크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엘리자벳의 득점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다양한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위기 메이커”란 말은 팬들에게도, 팀 언니들에게도 많이 들어요. (웃음) 팀에서 제 역할 생긴 것 같아 기뻐요. 제가 힘 내야 팬들도 좋아하고, 팀 분위기도 살아나니까 조금이라도 더 재밌게 경기하려고 하고 있어요.”



선수로서 아직 더 발전하고 싶은 욕심도 크다. 그는 “경기 들어가면 긴장하고 마음이 급해져서 실수하는 게 많다”고 설명했다. 수비 과정에서 네트 터치, 상대 수비 실수로 네트를 넘어온 볼을 곧장 처리하는 다이렉트 킬 상황 등에서 범실이 많이 나온다는 것. 최가은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나가는 능력을 키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지금은 연패만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믿고 기다려주세요. 아직 미처 못 보여드린 플레이가 많고, 선수들도 책임감을 갖고 마냥 지는 거에 익숙해지지 말자고 하고 있거든요. 날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경기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손타클로스’

손흥민, 경기장 뛰어든 어린이팬에 유니폼 선물



2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카라바오컵(리그컵) 8강전 토트넘 홋스퍼 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의 경기 후 그라운드에서 난입한 한 어린이 팬에게 토트넘의 손흥민(오른쪽·29)이 유니폼 상의를 벗어 선물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흥민(29·토트넘)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어린이 팬의 ‘산타’로 나섰다.

토트넘은 23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1-2022시즌 카라바오컵(리그컵) 8강전에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를 2-1로 제압하고 준결승에 올랐다. 14년 만의 우승에 도전하는 토트넘은 첼시와 결승 진출을 다투게 됐다.

손흥민은 이날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가 후반 16분 투입돼 경기가 끝날 때까지 그라운드를

누볐다.

예상치 못한 손님도 있었다. 한 남자 어린이가 그라운드로 난입해 손흥민을 향해 달려왔다. 경기장 안전요원이 이 어린이를 뒤쫓았다.

손흥민은 웃으며 어린이에게 가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유니폼 상의를 벗어 선물로 줬다.

어린이들에게 ‘손타클로스(손흥민+산타클로스)’로 나서 감동을 준 손흥민은 오는 27일 0시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정규리그 4경기 연속골 사냥에 나선다.

/연합뉴스

## 광주FC, 초등학생 대상 U-12 유소년 선수 모집

광주FC가 '제2의 임원상'이 될 꿈나무를 찾는 다.

광주 지역 우수 선수 발굴 및 인재 육성을 위해 산하 유소년(U-12) 선수를 모집한다.

미래의 임원상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폭넓은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광주 거주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2010~2015년생)을 대상으로 수시로 모집이 진행된다.

신청은 광주 공식 홈페이지(www.gwangjufc.com)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

(94bjinsoo@naver.com)로 보내면 된다.

광주는 최종 합격자에게 광주 유니폼과 함께 축구 용품(트레이닝복·스타킹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광주 관계자는 “구단은 유소년 축구 활성화와 꿈나무들이 축구를 통해 사회적, 협동심까지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며 “임원상, 엄지성, 허율, 이희균 등 유소년 출신 선수들이 프로선수로 성장한 만큼 축구 재능을 가진 많은 학생이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